



뉴스제보: 041)631-8114 / 광고문의: 080-631-8114

# 참교육을 선도해가는 CTN 교육신문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  
**CTN**  
<http://www.ctnews.kr>

2021년 10월 26일 (화) [제61호]

## 학교에서 학생 내쫓는 공교육 '위협행위' 이대로 좋은가?

최근 부산 인제대부산백병원이 시설 확장 등을 목적으로 병원 앞 주원초등교 폐교를 추진해 반발을 사고 있다. 병원은 '주원초 통폐합 서명부'까지 만들어 직원, 주민 등의 동의를 받으면서 학부모들과 충돌까지 빚고 있다. 이에 교육계는 민간 병원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멀쩡한 학교를 유탈지르고 학생들을 내쫓으려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어른들의 이해에서 비롯된 초유의 비교육적 행태이자 경제 논리로 공교육을 위협하고 아이들의 교육권을 강탈하는 것과 다름 없다"며 "백병원은 학교 폐교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부산교육청도 적극 개입해 폐교 추진을

막고 지역갈등을 해소하라"고 촉구했다. 또 "주무관청도 아닌 민간 병원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학교터를 내놓으라는 황당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개탄스럽다"며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것은 진즉 폐교 추진을 막았어야 할 부산교육청의 미온적인 태도에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부산교육청은 원도심 학교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최근에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선정에서 소규모학교를 제외하는 등 차별행정을 펴 논란이 됐다"며 "교육청이 얼마나 소규모학교를 훌륭, 배제해왔으면 이제는 민간 병원까지 나서서 똑같은 행태를 반복한 말이냐"고 비판했다.

교육계에 따르면 경제논리에 입각한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비단 부산뿐

만이 아니며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다. 현재 학교 통폐합 기준은 초등교의 경우 면·벽지 60명 이하, 읍지역 120명 이하, 도시지역 240명 이하이며, 중·고교는 면·벽지 60명 이하, 읍지역 180명 이하, 도시지역 300명 이하다. 이런 기준이면 우리나라 원도심, 농어촌 소규모학교가 3분의 1 이상 없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최근 5년간 통폐합된 학교만 329개에 달한다. 또 학교통폐합으로 아이들은 집에서 점점 먼 학교로 내몰리며 등하고 안전을 위협받고, 지역은 공동화 돼 주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어 지역사회와 교육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상황에서 단순히 학생 수에 따라 획일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또 학교

는 지역사회의 구심점이고 지역공동체의 일부분으로 주민들의 교감과 소통의 장이며, 오히려 돌아오는 학교 만들기,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도시형 소규모학교 모델 마련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코로나-19에서 경험했듯이 작은학교는 전면 등교가 가능하고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커다란 장점이 있다"며 "저출산을 이유로 성격적인 통폐합만 하지 말고 거꾸로 작은학교의 교육적 가능성을 적극 지원해 육성하고 지역사회를 되살리는 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총은 비교육적인 폐교 시도를 반드시 막아 아이들의 교육권을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기금현 기자

## 충북교총, 교섭·협의 요구서 도교육청 제출

충청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서강석)는 지난 13일, 전문직 교원단체의 활동보장, 교원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 교원 신장 및 전문성 신장, 교원 승진 및 인사제도 등 4개 영역에 대해 74개조 및 부칙 3조로 구성된 「2021 충북교총-도교육청간의 교섭·협의」 요구서를 도교육청에 제출했다.

교원 처우 및 근무 여건 개선과 관련해서는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교원성과상여금 폐지 노력 ▲교원 업무경감 ▲도내 평준화 일반계 고등학교의 시도교육청주관 전국단위 모의고사 평가결과 이명공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감축 ▲행복씨앗 학교의 예산 지원 공개 및 예산 사용 공개 ▲각종 교원수당 인상 ▲유·초·중등 교원연구비 동일하게 책정 및 인상 등 교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요구했다.

교원 신장 및 전문성 신장 관련해서는 ▲교원침해로부터 교원의 보호 강화 ▲법률이 정한 학교장 권한 보장 ▲업무상 재해로 인한 교원에 대한 지원 ▲교원 자율연수비 예산 증액 등 다양한 교육활동 공간에서의 교원지위 향상 및 적극적인 교권확립 방안 마련 및 시행도 요구했다.

교원승진 및 인사제도와 관련해서는 교원의 전보 내신서 작성시 근무평정점 반영, 인턴장학사 및 파견교사제도 폐지 등 ▲교원 전보내신 개선 ▲교원포상관련 온라인 검증시스템 도입 등 투명성 확보 ▲교육전문직원 선

발시 전문분야 선발 폐지, 선발 우대점 부여, 선발시 각 단계별 득점 합산 등 교육전문직원 선발 개선 ▲투명한 교장공모제 운영 ▲교원전보시 이동 점수 공개 등 인사 및 전보와 관련하여 교원 의견 존중 ▲학사일정 및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원이 교총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 ▲교원단체가 지정하는 자에게 충북소통메신저 ID 발급 ▲각종 연수 시 교원단체에 대한 홍보시간 보장 등 전문직 교원단체의 활동 보장을 위한 내용을 요구했다. /박철우 기자

## 경기도교육청, 11월부터 선배동행으로 교육회복 지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11월부터 중·고등학생 교육회복을 지원하는 선배동행제를 시행한다.

선배동행제는 도내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한 학교 이상 졸업한 성인이 선배동행자가 되어 재학생인 후배동행자의 일상을 챙기고 고민을 들어주며 조언하는 개별 상담체제로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경기도교육청만 추진하는 교육회복 프로그램이다.

각 학교는 선배와 관심분야, 진로, 가정, 학교생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점서 교감을 원하는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적정한 선배동행자를 선발·위촉해 상호 연결하고, 심층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담임교사와 전문상담교사를 연계한다.

선배동행자는 한 학교에서 1명에서

상당은 SNS(누리 소통망 서비스)나 메타버스(가상화장세계)를 이용해 월 20회 이상 진행한다.

도교육청은 선배동행제를 내년 2월까지 총224 고1 학생을 우선 대상으로 시행하되, 다른 학년 학생들이 희망할 경우 후배동행자를 확대하도록 했다.

선배동행을 원하는 도내 중·고등 학생은 학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선배동행자를 연결받을 수 있다.

선배동행자로 활동하려면 도내 초·중·고 가운데 한 학교 이상 졸업한 사람으로 도내 중·고등학교의 선발공고를 참고해 지원하면 된다.

선배동행자는 한 학교에서 1명에서 5명까지 후배동행자 연결이 가능하며 한 달에 20회 이상 활동을 진행하면 봉

사활동 실비 20만 원을 받는다. 선배동행자는 2개 학교까지 활동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내년 2월까지 선배동행제 운영 결과와 현장 의견을 수렴해 2022학년도 선배동행제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김병진 학교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학생들이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늘었지만 혁가족화, 맞벌이가 정증가로 가족과 대화하고 교류할 수 있는 상황은 오히려 좋았다"면서 "선배동행제는 비대면 대화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확장된 가족을 만들어줌으로써 선배와 후배가 함께 성장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1년 3월 질병관리청이 발

표한 '2020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서 설문에 참여한 경기도 중·고등학생의 26.8%가 '주내 우울감을 경험한다'고 답했다.

평소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낀다고 답한 도내 중·고등학생도 35.8%에 달했다.

/김자우 기자



## 제12회 전국사업경진대회 힘찬 발걸음

### 제11회 전국사업경진대회 개회식 참석 및 대회기 인수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지난 18일 오전 10시 제11회 전국사업경진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으로부터 대회기를 전달받았으며, 2022년 제12회 전국사업경진대회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기한다고 밝혔다.

'2021년 제11회 전국사업경진 대회'는 교육부가 주최하고, 전라북도교육청 등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참가해 자신의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설동호 대전광역시 교육감은 "2022년 대전에서 개최하는 전국 사업경진대회를 더욱 안전하고 알차게 준비해 사업분야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다 함께 참여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해 지역간 이동을 최소화했고 동시간대 참가인원을 50명 이내로 운영한다.

이번 대회에는 대전대성여자고등학교, 대전국제통상고등학교, 대전신일여자고등학교,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등 4개학교 48명의 학생이 참가해 자신의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설동호 대전광역시 교육감은

"2022년 대전에서 개최하는 전국 사업경진대회를 더욱 안전하고 알차게 준비해 사업분야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다 함께 참여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 1면 교육정책
- ▶ 2면 전국종합
- ▶ 3면 학교탐방 대철중학교
- ▶ 4면 전국교육청
- ▶ 5면 인터뷰 김석환 홍성군수
- ▶ 6면 충청교육
- ▶ 7면 충청교육
- ▶ 8면 전국교육
- ▶ 9면 전국종합
- ▶ 10면 오피니언
- ▶ 11면 오피니언
- ▶ 12면 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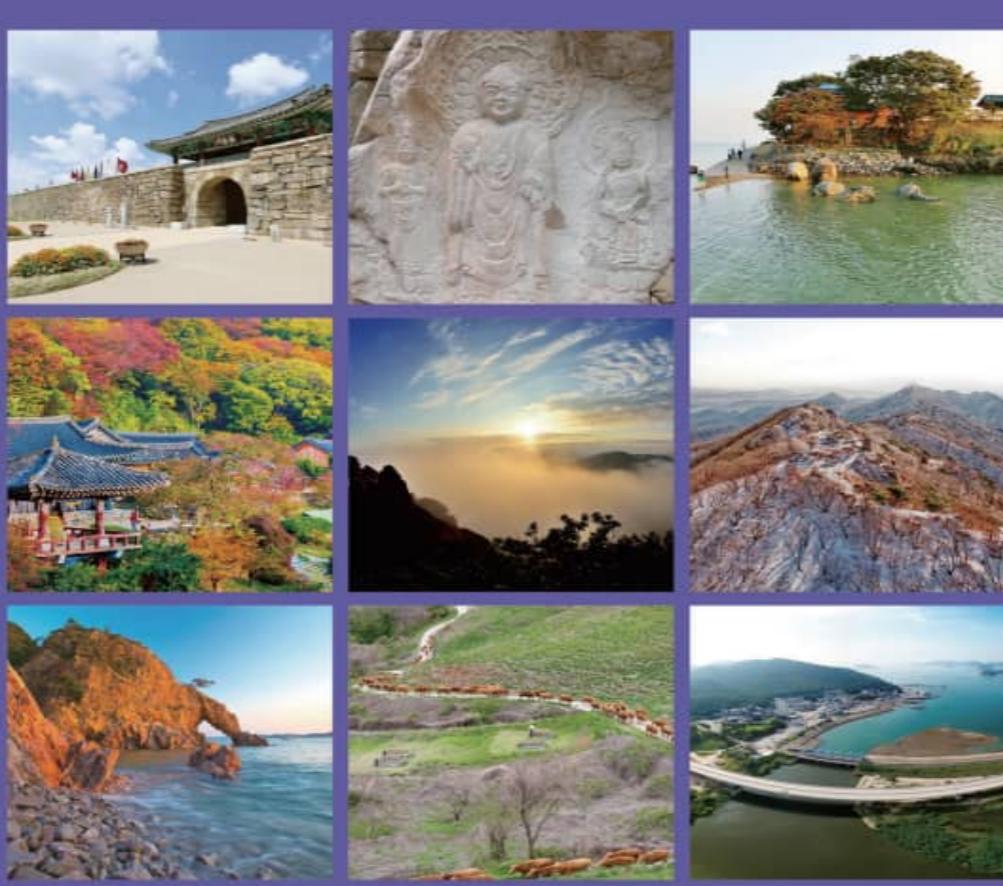
참교육을 선도해가는  
**CTN 교육신문**

## INDEX

- ▶ 1면 교육정책
- ▶ 2면 전국종합
- ▶ 3면 학교탐방 대철중학교
- ▶ 4면 전국교육청
- ▶ 5면 인터뷰 김석환 홍성군수
- ▶ 6면 충청교육
- ▶ 7면 충청교육
- ▶ 8면 전국교육
- ▶ 9면 전국종합
- ▶ 10면 오피니언
- ▶ 11면 오피니언
- ▶ 12면 기획

Welcome to **SEOSAN!**

- ① 해미읍성
- ② 서산용현리마애여래삼존상
- ③ 간월암
- ④ 개심사
- ⑤ 팔봉산
- ⑥ 가야산
- ⑦ 황금산
- ⑧ 서산한우목장
- ⑨ 삼길포항



서산으로  
함께  
더나요

서산시  
SEOSAN CITY